

인도서 이재용 만나는 文 대통령 “안 만날 이유 없다”

(삼성전자 부회장)

文 대통령, 8일 인도·싱가포르 순방길

전략적 관계 발전시킬 계기 될 것
삼성 노이다 공장 준공식 등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

첫 번째 방문국인 인도는 오는 12월로 우리나라와 수교 45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기간인 9일엔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판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방문은 정상들 간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인도·싱가포르가 지닌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구조를 최대한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8일부터 10일까지 머물게 될 인도에선 모디 총리와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동포간담회, 간디추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8일부터 13일까지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일 오후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봄씨어터를 찾아 인도 유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공원 헌화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13억1000만명 정도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는 이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 규모가 세계 3위권이다.

2015년엔 경제성장률이 16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앞질렀고, 2016년 이후에도 성장률이 중국을 계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인도 국빈방문은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지정학적·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교두보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취임한 모디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인공과 함께 중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공장’을 지향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모디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

태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항공, 화학, 건설, 전자기기와 같은 25개 중점 유치 분야를 지정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상한도 완화하는 등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키로 한 가운데 취임 후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정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공장은 삼성전자 6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만드는 인도 최대의 휴대폰 공장”이라며 “지금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이지만, 중국계 기업들과 시장점유율 1%를 두고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공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크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대통령 순방 일정과 함께하는 인도 경제사절단엔 이 부회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대신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단에 올라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일정은 개별 기업의 일정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최고 위급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삼성그룹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관찮은가’라는 질문에는 “왜 오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전문경영인이 다 오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국 순방 때에는 현대차 충칭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도 뉴델리를 출발, 싱가포르로 이동해서는 리셴룽 총리와와의 회담 및 양국 기관 양해각서(MOU) 서명식 참석,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등에 참석한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 정상을 위해 배양한 난초에 외국 정상의 이름을 붙이는 ‘난초 명명식’에도 참석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사회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협력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강연도 할 계획이다.

김현철 보좌관은 “싱가포르 국빈방문은 첨단산업 선진국인 싱가포르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위해서”라며 “또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발전을 제시하고 모범적인 협력 사례들도 함께 발굴해 나가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건설·IoT·웰빙식품 ‘인도시장 진출’ 유망

인도 경제동향·진출 유망분야 보고
건설·경제·농업 2분기째 7% 성장

신남방 정책 핵심국인 인도 시장 진출 유망 분야로 건설·인프라, 사물인터넷(IoT), 웰빙식품이 꼽혔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는 양허 수준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인도 경제동향 및 진출 유망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건설·제조·농업 분야의 선전으로 최근 2분기 연속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인도 경제가 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에 힘

입어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인도 진출 유망 분야로 정부와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업을 꼽았다. 인도 정부는 올해 도로 건설 예산을 7054억 루피(약 1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9% 증액했고 철도에는 12.9% 늘어난 1조4800억 루피(약 216억 달러)를 배정했다. 인프라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 확대, 최소 투자기준 완화 등 투자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진출 유망 품목으로는 IoT 제품과 웰빙 포장식품을 선정했다. 세계 2위 인터넷 사용자 수와 ‘디지털 인디아’, ‘IoT 발전 생태계 구축’ 등 인도 정부의 4차 산업

혁명 육성정책에 힘입어 인도 IoT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28%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칼로리 소모, 심박 수, 운동량 등을 측정하는 건강 관련 웨어러블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인도 소비자의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웰빙 포장식품 수요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인도 웰빙 포장식품 시장은 2021년 1조 루피(약 14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 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률은 67.5%로 우리나라의 전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인 70%를 하회하고 인도의 개방 양허수준도 일본보다 낮게 나타났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교황의 따뜻함, 인류에 새로운 희망”

文 대통령, 교황청 갈라거 장관 접견
“남북·북미회담 성공에도 큰 힘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교황 성하께서는 지난 방한 때 세월호 참사로 슬픔을 겪는 한국민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를 주셨고, 이후에도 평창동계올림픽·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 중요 계기마다 남북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내주셨고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서 격려해주셨다”며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성공에 큰 힘이 되어 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갈라거 대주교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교황 성하께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황께서 항상 낮은 자세로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인아주시고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진력하시는 모습은 한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갈라거 대주교를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라거 장관께서도 기회마다 우리 정부에 큰 도움을 주셨다”며 “직접 감사드릴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갈라거 장관께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한 것으

로 알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 고통받는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하도록 교황께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인도 경제사절단 명단〉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구분	연번	업체명	성명	직위
주관	1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2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3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4	SK루브리컨츠	지동섭	대표이사
	5	LG전자	안승권	사장
	6	롯데그룹 식품BU	이재혁	부회장
	7	포스코	성기웅	법인장
	8	GS칼텍스	김형국	사장
	9	한화디펜스	이성수	사장
	10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11	두산	동현수	부회장
	12	대한항공	이병호	동남아지역본부장
	13	CJ대한통운	박근태	대표이사
	14	CJ제일제당	김진현	부사장
대기업 (14개사)	15	LS전선	명노현	대표이사
	16	계양정밀	정병기	대표이사
	17	디젠	한무경	회장
	18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
	19	법무법인 울촌	정동수	고문
	20	법무법인 화우	박상기	고문
	21	세라젬	이환성	회장
	22	에이치엠디씨	김영수	사장
	23	엘비루셈	최신	수석
	24	킨텍스	임창열	사장
	25	팬코	오경석	사장
	26	한국정보통신	임명수	부사장
	27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조원	사장

박용만·윤부근 등 경제사절단 발표

대한상의, 대기업 14곳·중견 12곳

대한상공회의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 명단을 5일 발표했다.

명단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지동섭 SK루브리컨츠 대표이사 ▲안승권 LG전자 사장 ▲이재혁 롯데그룹 식품BU 부회장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이성수 한화디펜스 사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김진현 CJ제일제당 부사장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김도

진 IBK기업은행 은행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위성호 신한은행 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 은행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박진희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등 총 100여개사가 참석한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4개사이고 중견기업 12개사이다. 중소기업 55개사와 기관·단체 23개사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인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사절단이 만들어졌다. 대한상의는 경제사절단 선정 주관기관으로서 공정한 참가기업 선정을 위해 주요 협회 대표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인병도 기자 catchrod@